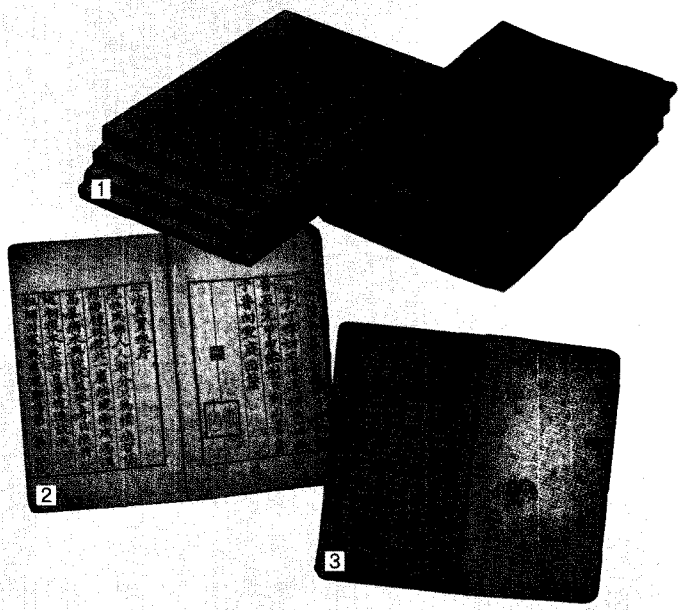
2010 홍두선 기증유물특별전 "조선시대 베스트셀러"

조선시대 책과 인쇄문화가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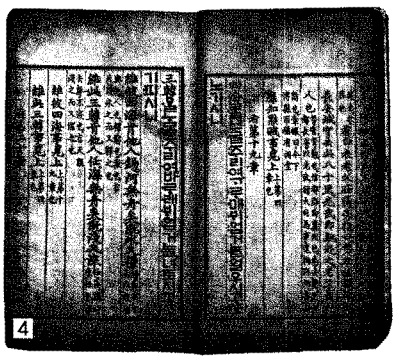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0년 기증유물특별전으로 "조선시대 베스트셀러"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2008년 중계동에 거주하는 홍두선 씨가 기증한 전적류 기증유물 총 470건 967점 중에서 약 90점을 선별하여, 조선시대 책과 인쇄문화, 옛 사람의 독서문화, 한양의 책 이야기 등의 주제로 전시되었다.

15세기 금속활자 인쇄문화를 보여주는 보물급 유물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찍은 금속활자, 실용적인 목활자, 대중적인 목판 등 다양한 인쇄문화가 발달했다. 금속활자 중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기본적인 활자체였던 갑인자 인쇄본을 세종대 초주갑인자(甲寅字)로부터 정조대 육주갑인자인 정유자(丁酉字)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조선시대에 유행한 금속활자본 10종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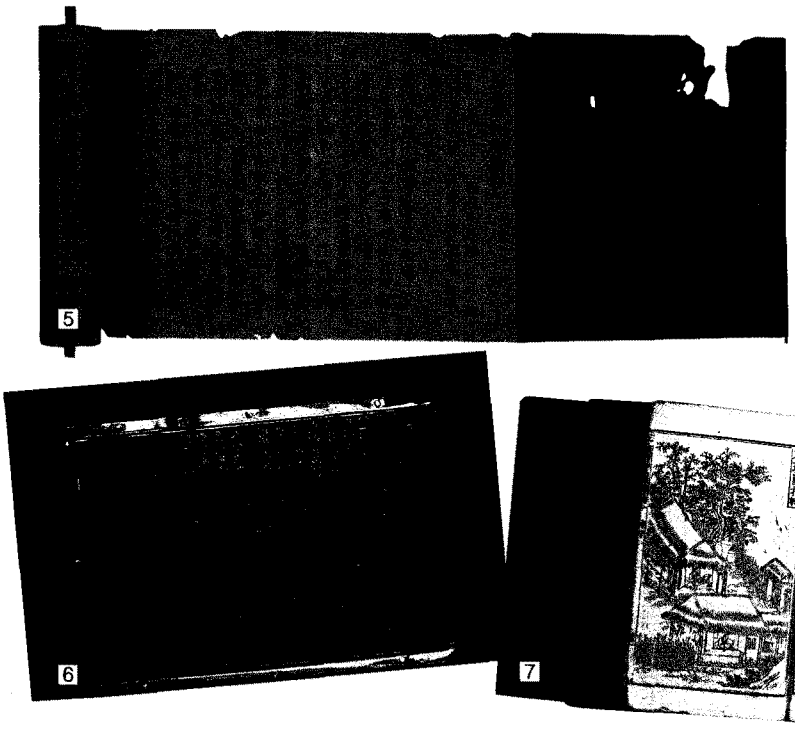
특히 홍두선씨가 기증한 유물 중에는 『진실주집(眞實珠集)』, 『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등 15세기 금속활자 인쇄문화를 보여주는 보물급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 초기 한글본으로는 가장 선본으로 꼽히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보물 1463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와 초조본 대장경 중에서도 원형의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초조본현양성교론(初雕本顯揚聖教論, 보물 제1356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도 함께 전시됐다. 금속활자 뿐 아니라 목활자본의 공신녹권, 목판본의 개인문집 등을 함께 전시하여 조선시대 인쇄문화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했다.

1_ 곽장양문록
2_ 진실주집
3_ 영가진각대사증도가
4_ 용비어천가



옛날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했을까?

이번 전시에서는 옛사람들이 어떤 책을 즐겨 읽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사대부들은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경전을 주로 읽었는데, 단순히 읽은 것을 지나 모조리 외울 정도였다. 뛰어난 학자들은 적어도 한 종류의 책자를 일천 번 이상 읽었다고 한다. 여성들은 소설책을 좋아했다. 여성들은 남편의



5_ 초조본 현양성교론
6_ 복원 금속활자(갑인자)
7_ 오륜행실도
8_ 합작잡화병

내조와 가사, 육아의 와중에도 소설책을 틈틈이 읽어 대중문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책 대여점에서는 책을 정밀하게 베껴 써서 빌려주고 그 값을 쳐서 이익으로 삼는다. 혹 비녀나 팔찌를 팔고, 혹은 동전을 빚내어,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긴 날을 소일하면서, 자신의 베 짜는 임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왕 있었다."(채제공(1720~1799) 여사서서(女四書序) 정조대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말로, 이는 조선후기 여인들의 책 읽기 열풍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양의 책 문화 이야기

경인쇄 시장에서 필요한 중철 제본과 펀칭, 트리머, 접기 19C 한양의 육조 앞거리(광화문 네거리)에는 책을 파는 서점이 있었고, 광통교에는 서화점이 있어서 이 일대는 문화의 거리였다. 무교동, 남대문로, 을지로1가, 무교, 미동, 유동, 광통교 등에는 책을 만드는 곳이 밀집해 있었다. 또 한양에는 책의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 서적 중개인도 있었으니, 18~19C에는 조생(曺生)과 같은 사람이 유명했다.

책이 없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꾼을 통해서 책 속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보신각~종로6가를 오가며 활동하던 이야기꾼들을 일러 전기수라고 했는데, 그의 책 읽어주는 솜씨가 일품이어서 청중들이 돈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기수와 서적중개인들의 활동무대, 육조 앞거리와 광통교 일대 도서문화 지역 등을 대형 '都城大地圖'에 구현하여 당시 한양의 독서문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서화류 기증유물

홍두선 기증유물에는 전적류뿐만 아니라 서화류 유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옥동 이서, 표암 강세황, 추사 김정희 등 한국 서예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홍두선 선생님의 12대조인 홍가신의 작품도 있다. 또 합작잡화병(合作雜畵屛)은 근대기 대표적 화가 안중식 등 4명이 그린 12폭 합작도이다.

12폭의 그림들은 4명의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서울화단에서 활동한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의 그림 4폭, 이도영(李道榮, 1885~1933) 2폭, 그리고 대구화단에서 화단에서 활동한 서병오(徐丙五, 1862~1935)의 그림 3폭, 곽석규(郭錫圭, ? ~1935) 3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증자 홍두선에 증언에 의하면 본래 이 그림은 위암 장지연(1864-1921)이 아버지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하여 병풍으로 만들었던 합작도였다고 한다.

다양한 인쇄문화 체험코너 마련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철저한 고증으로 복원한 1434년(세종16) 갑인자 1판(청주고인쇄박물관 후원), 금속활자 제작·주물 과정을 보여주는 재료와 도구(중요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씨 제공) 등을 공개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였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刻字匠) 오옥진(吳玉鎭)씨가 각자한 오륜행실도를 직접 인출해 볼 수 있었으며, 이 인출본으로 오침안정법에 의한 옛 책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운몽』,『춘향전』 등과 더불어 전기수들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던 고전소설 『소대성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선보였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